

담마난다, 태국 불교계 여성불자 위상 높여

태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교단 내에서 비구 스님과의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DW AKADEMIE〉지는 지난 2일 "비구니 담마난다(Dhammananda) 스님을 중심으로 6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송담마카야니(Songdhammakalyani) 사원에서 비구니 스님을 향한 교단과 사회의 편견을 개선하고, 여성의 종교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DW AKADEMIE〉지에 따르면, 방콕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나콘 파툼(Nakhon Pathom)의 송담마카야니 사원에서는 태국의 여승 사원과는 달리 비구가 아닌 6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붉은 가사를 입고 새벽 예불을 올리며, 주변 마을을 돌며 자선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태국을 통틀어 유일한 진풍경'인 셈이다.

"태국에서 유일한 이 모습은 어머니께서 서원했던 모습"이라고 기억을 더듬은 담마난다 스님은 "어머니께서는 독실한 우바세로서의 여정을 견디고, 출가를 결심했다"며 "그로부터 10년 후 어머니는 구족계를 수지하지는 못했지만, 태국 불교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구니 스님'의 모습으로 제게 돌아오셨다"고 회고했다.

담마난다 스님의 어머니는 보라마이(Voramai) 스님으로, 1950년대 여성 출가가 허용되지 않았던 태국 불교계의 '금기'를 깨고, 출가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송담마카야니 사원도 '여성을 위한 사원'을 서원했던 보라마이 스님의 원력으로 출발해, 지금의 사격을 갖출 수 있었다.

담마난다 스님은 출가 전 방콕의 타마사(Thammasat) 대학의 종교철학 교수로 활



태국에서 여성의 종교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담마난다 스님

종교철학 교수, 모친영향으로 출가 비구니 스님 6명, 예불과 자선활동 비구 중심인 태국서는 유일한 광경 승단에서는 아직도 적의 드러내

동하며, '여성과 불교'를 주제로 한 저술에 몰두했다. 또 태국 정부가 수여하는 여러 상을 받았고, 매스 미디어의 단골 게스트로도 활동했다.

"사회적인 성공도 어머니의 삶에 비추보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담마난다 스님은 "이들 계기로 출가를 결심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하기 위해 스리랑카 불교계로 인생의 향로를 돌렸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송담마카야니 사원의 대중들에게 매일 아침 공양을 올리며, 태국불교계의 변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태국에서 여성의 종교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담마난다 스님의 노력은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한 이후부터다.

"2000년 전 태국에도 비구니 교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게 애석하다"고 말한 담마난다 스님은 "이제부터라도 그 교단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여성 불자들의 교류를 증대하고, 보수적인 태국 불교계를 설득하다보면 언젠가는 이뤄지지 않겠냐"고 희망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태국의 헌법에는 '비구니 스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승단에서는 여전히 '비구니 스님'에 대해 적의를 보이고 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직 비구 스님만이 대중이 될 수 있다'는 편견 때문이다. 태국 불교계에서 여성의 출가는 물론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태국에는 30여 명 안팎의 비구니 스님만이 있을 뿐"이라는 수타다(Sutada) 박사(국가대학 재직)는 "태국의 헌법에서는 비구니 스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비구 스님과 같은 권리와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며 "비구니 스님은 매일 정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구니 스님은 그렇지 못한 태국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와 여성문제를 연구해온 하트포트 대학교(University of Hartford) 낸시 번스(Nancy J. Barnes) 교수는 "동남아 국가에서의 비구니 교단의 복원은 여성불자들이 종교라는 공동된 우산 아래에서 보다 많은 활동을 벌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담마난다 스님의 노력은 태국 불교계에서의 여성 재가자와 출가자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부다넷(Buddhanet), 불교전자도서관 오픈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접속 가능...영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운영

불교전자도서관(Buddhist eLibrary)이 오픈됐다.

〈patheos〉지는 "부다넷(Buddhanet)이 구립 27일 와이파이로 접속 가능한 '모바일 불교전자도서관'을 오픈했다"고 보도하고, "이번 불교전자도서관은 컴퓨터는 물론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휴대폰 등)나, 아이폰 등에서도 접속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부다넷 측은 "부다넷 불교전자도서관은 현재 영어, 중국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5개 국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들의 요구가 확대되면, 해당 언어에 대한 서비스도 준비·시행할 방침이다."

불교전자도서관에서 내놓은 불교 자료는 불법교육연합회(Buddha Dharma Education Association)와 보리나무 숲 사원(Bodhi Tree Forest Monastery), 국제불교대학(International Buddhist College), 불교 마하 비하라(Buddhist Maha Vihara), 마하추라롱콘 대학



부다넷이 오픈한 모바일 불교전자도서관

(Mahachulalongkorn University) 등에서 제공된 것이다.

부다넷 측은 "불교전자도서관은 불교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이를 위해 세계 유수 불교 관련 연구 및 교육 기관의 도움을 받아 운영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각각 각색의 종파로 나뉘는 불교를 하나의 가르침, 법으로 엮어 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라사, 28일 '버터 램프 축제'

15세기 시작된 불교 축제 ... 약 3천여 명 다녀가

버터 램프의 불빛이 구름 28일 티베트 라사의 밤하늘을 수놓았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일명 '버터 램프 축제'로 알려진 이번 축제는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밝히듯 투명한 유리 불에 야크 버터를 담아 불을 밝히는 것으로, 이때 티베트인들은 자신의 서원을 세운다.

이날 축제에 참여한 텡송카파(Tsongkhapa · 52) 씨는 "가족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마음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한걸음에 왔다"며 "버터 램프 축제는 티베트 곳곳에서 열리지만, 이곳 라사의 축제는 티베트 자치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티베트학 연구소

(Tibetology Researcher Center)'의 루암(Lukyab) 박사의 말을 인용, "버터 램프 축제는 티베트불교의 거대 종파인 겐룩파 초기 고승들의 열반을 기리기 위해 15세기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하며, "겐룩파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궁이 있는 '라사'에 유독 많은 티베트인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라사 축제의 진행위원으로 활동한 담초스 온탄(Damchos Yontan) 스님은 "축제는 램프 밝히기, 향나무 가지 태우기, 사원 참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올해 '버터 램프 축제'에는 약 3천여 명의 티베트인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투명한 유리불에 야크 버터를 담아 불을 밝히는 '버터 램프 축제'

인도서 2천년전 불교사원지 발견

나가라주나콘다, 아마라바티 일대에서 불교사원 구조물 발견돼



인도 나가라주나콘다, 아마라바티 일대에서 발견된 2000년전 불교사원

인도 나가라주나콘다(Nagarjunakonda)와 아마라바티(Amaravathi) 일대에서 2000년 전 불교사원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되어, 인도 관련 학계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Indian Express〉지는 1월 1일(현지 시각) "나가라주나콘다와 아마라바티 지역의 미개척지에서 2000년 전 고대 불교사원으로 보이는 유적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전하고, "두 지역에서 많은 불교유적이 발견됐지만,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사원유적의 경우 그 규모 면에서 발굴된 유적보다 앞선다"며 "따라서 오는 2월부터 시작될 두 지역의 고대 불교유적에 쏟아지는 관심이 대단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도 국무부 고고학 부서는 두 지역에 대한 발굴을 신청·승인 받았고, 조만간 뉴델리 대학교 공동으로 세밀한 지표 조사와 발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무부 고고학 부서는 지난해 1년간 메닥(Medak), 쿰마리로바(Kummarilova), 야

아파라주(Ayyaparaju) 등 5개 불교 유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Indian Express〉지는 "이번 발굴 승인은 이례적인 일로 보여진다"며 "관련 학계의 주목이 커지고 있는 것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고학 부서에 따르면 두 지역에서 원형 및 사각형 모양의 사리탑, 64기의 돌기둥, 불보살이 조각된 돌 벽, 비문 등 사타바하나(Satavahana) 왕조와 익사바쿠(Ikshvaku) 왕조에 속하는 유물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로마시대의 동전, 페르시아 도자기 등도 발견되어, 고대 무역의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고고학부 라마크리시나 라오(Ramakrishna Rao) 국장은 "두 지역에서 새롭게 확인한 유적은 규모도 대단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로마의 동전과 페르시아 도자기 등이 발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인도 문화서적인 가치가 크다"며, 이번 발굴에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오종욱 편집위원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굴사

주지 덕조

신도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지산치과의원

원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임프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2동 1188-2
TEL 053)782-0022 FAX 053)782-2875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신도회

신도회장 여공 한삼화

(주) 삼한C1 (대표이사 회장)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사무국연락처 : 사무국장(이달용)
010-3510-9985

한국불교태고종

마안산 자비암

주지 자관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5번가길 46(명륜동)
TEL 051)552-3320